

## □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①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 추가

- 실제로 이식이 이루어진 바 있고 향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과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하여 백혈병 관련 질병을 치료 가능한 '말초혈'을 '장기등'으로 규정

- 이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 등 11개 별지 개정

## ② 손·팔 및 말초혈 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 (손·팔) (시설)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장비) 미세현미경, (인력)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수부외과 전문), 외과 또는 내과(국내 또는 국외의 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이식훈련과정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전문의) 의사
- (말초혈) (시설) 무균입원실, (인력) 혈액종양 전문 내과의사

## ③ 손·팔의 경우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

- 손·팔 이식의 역사가 짧고 이식 건수가 적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이식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점 반영

## ④ 심장·폐 이식기준 개선

-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체중 등은 삭제하고, 대기기간·기증전력·나이만을 가산점 항목으로 규정
  - \* 가산점 10개 항목중 혈액형과 권역에 따른 우선배분 원칙을 적용하고,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5개 항목은 삭제하며(감염성 질환여부, 기증자와의 나이·체중·폐크기 차이, 원인질환의 유형), 3개 항목은 현행유지함(대기기간·기증전력·나이)

## ⑤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 가능

-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의 편의 도모

## □ 수부(손, 팔) 이식 주요 현황

### ○ 해외사례

- '98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이식했으나 면역거부반응으로 실패,  
'99년 미국에서 최초로 이식 성공

-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100여건 이식

\* 우리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로 이식

### ○ 예상 수요('16.12월 기준)

- 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등 총 7,021명

### 조혈모세포 이식현황

#### ○ 골수와 말초혈 이식 현황

(단위 명)

구분	골수	말초혈	합계
2000년	338	3	341
2001년	416	13	429
2002년	477	5	482
2003년	437	7	444
2004년	399	20	419
2005년	326	46	372
2006년	282	123	405
<b>2007년</b>	<b>215</b>	<b>230</b>	<b>445</b>
2008년	168	315	483
2009년	163	333	496
2010년	164	388	552
2011년	152	456	608
2012년	112	453	565
2013년	97	463	560
2014년	94	488	582
2015년	67	479	546
2016년	66	526	592
합계	3,973	4,348	8,321

#### □ 조혈모세포 기증 방식 비교

구분	골 수	말초혈
사전절차	자가수혈 위한 혈액 채취	3~4일간 과립구 촉진인자 피하주사
채취방법	전신마취후 골반(엉덩이)뼈에서 채취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
입원기간	3~4일	3~4일
채취시간	3~4시간	3~4시간